

# 대학 글쓰기교육에서 ‘자기서사적 글쓰기’의 위상과 방향성 연구\*

김정숙·백윤경 (충남대)

## < 목 차 >

- |   |                           |
|---|---------------------------|
| 1. 서론                                     | 3. 자기서사적 글쓰기의 필요성과<br>방향성 |
| 2.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의 현황과<br>분석: 2017년도를 중심으로 | 4. 결론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자기’ 관련 글쓰기 교육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그 위상을 확인하고, ‘자기’ 관련 글쓰기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이 대학에서 하나의 독립적 영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역할이 명료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지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 번째는 용어의 정립이며, 두 번째는 평가 준거의 제안이다. 첫 번째로 ‘자기’ 서사 관련 글쓰기 용어를 체계화하고 정립하기 위하여 주제어를 비롯한 기존 연구 결과를 수렴한 결과, 공통 요소가 ‘자기’와 ‘서사’라는 점과, 표현과 이해, 탐색과 성찰, 치유와 실용성의 성취나 효과도 자기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기원한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자기’ 관련 글쓰기들을 통합하여 지칭하는 용어로 ‘자기서사적 글쓰기’로 사용할 것을 제안

\* 이 논문은 2017년도 CNU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하였다. 두 번째로는 대학에서의 자기서사적 글쓰기의 변별성과 심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가의 준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대학 글쓰기교육의 평가와 관련된 논의는 다른 영역에 비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자기서사적 글쓰기의 경우 평가의 적용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자기 체험과 성찰 등의 내용은 그 나름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준거가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대학 글쓰기교육의 필요성 및 평가의 가치를 좀 더 숙고하여, 평가의 초점을 명료하고 다각화한다면 글 쓰는 두려움을 벗어나 길잡이 역할을 도모할 수 있으며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자기 내면의 이해와 자기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자 나아가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자기서사적 글쓰기교육은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인간 본연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자기’ 관련 글쓰기, 용어의 정립, 평가 기준, ‘자기’와 ‘서사’, 자기서사적 글쓰기, 4차 산업혁명

## 1. 서 론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21세기 대학의 목표 설정과 방향성에 대한 진단은, 차세대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동시에, 도래할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교육방향과 목표의 설정을 살필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이 실용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취업이나 소위 스펙을 쌓는 곳으로 간주되는 동안 학문 탐구와 성숙한 교양인의 육성이라는 대학의 본질이나 역할은 축소되었다.

대학은 진리 탐구와 함께 성숙한 민주시민을 교육하는 학문의 장이다. 원론적이어서 너무 늦어버린 이상처럼 여겨지지만, 그럴수록 대학의 본래적 역할과 기능을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지식의 창조적 생산이라는 대학의 기본 기능에 대한 자성적 목소리는 이 전부터 있어 왔다. 대학이 지식의 생산이 아닌 분절화된 지식의 전달·중개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문제제기는 인문·사회·이공계 어느 분야이든 한국 학계가 보여주는 서구 학계로의 학문적 종속성과도 맞닿아 있다.<sup>1)</sup>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 그리고 대학평가와 경제성장이라는 가치가 중점이 되어 주기적으로 개편되는 교과과정과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연구가 아닌 단기적 연구와 성과를 유도하는 시스템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대학 글쓰기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거대한 사회변화의 흐름에 대응하여 대학 글쓰기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초교과목으로서의 교육목표와 방법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앞두고 초지능(superintelligence)·초연결(hyperconnectivity) 사회로의 변화 가능성에서 중요시되고 요구되는 창의력과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협력 능력 등을 기르기 위한 방법의 기초는 단언컨대 글쓰기라 할 수 있다. 단 한 단락의 글을 쓰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글쓰기는 창의력을 요구한다. 생각의 도출과 이를 논리적·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표현하여 한 편의 글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논리적·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필요로 하며, 또한 글을 통하여 타자와 소통함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더구나 인문학과 이·공학 기술을 접목한 창의적인 융합교육의 필요성<sup>2)</sup>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대학 글쓰기교육은 시대가 요구하는 창

1) 윤지관, 「현단계 한국 대학의 위기 양상과 대학 체제 개편 논의」, 『동향과 전망』 통권 99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7.2, p.203.; 김화경, 「역량기반 교육과정 고찰 및 창의융합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적 글쓰기 운영방안 연구」, 『대학작문』 제19호, 대학작문학회, 2017, pp.129-131 참조.

2) 2016년 1월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는 교육시스템의 재고

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이자 기본 학습으로서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는 대학 글쓰기교육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도구로서의 성격<sup>3)</sup>과 인문학적 성격과도 관계가 깊다.

특히 사물인터넷(IoT)을 포함한 인공지능(AI)의 발달은 인간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정면으로 제기한다. ‘자기’ 관련 글쓰기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는 인간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 발견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대학에서의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은 자기 발견과 탐색적 사고와 글쓰기 능력의 신장 양면을 모두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2005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연구 성과 또한 누적되어 왔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의 대학 글쓰기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의 목적과 방향은 적절한가. 이에 대한 물음은 ‘자기’ 관련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지점이 된다.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목표의 설정과 방향성이 뚜렷하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지를 살펴야 할 때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그 위상을 확인하고,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Rethinking education systems) 차원에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이분법(양분화)을 지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The Future of Jobs Report: Employments,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2016.01.18. p.32. (<https://www.weforum.org/reports/the-future-of-jobs>)

- 3) 정희모,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방향」, 『작문연구』 1권, 한국작문학회, 2005, pp.120-126.

## 2.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의 현황과 분석: 2017년도를 중심으로

### 2.1.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의 현황

대학 글쓰기교육이 본격적으로 출발한 2005년부터 2017년도에 발표된 대학 글쓰기교육 관련 논문 764편<sup>4)</sup> 중 140편의 논문(평균 18.3%)이 ‘자기’ 관련 글쓰기에 관한 논문에 해당하며, 2005년도부터 자기성찰, 자기서사적 글쓰기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높아지고 있다는 점<sup>5)</sup>은 자기성찰, 자기서사와 관련한 글쓰기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논의들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글쓰기를 통해 찾아가고자 하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7년도는 대학 글쓰기교육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가장 많은 연구 결과를 도출한 시기라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다. 2017년도의 대학 글쓰기교육 관련 논문은 총 122편<sup>6)</sup>(2018. 01. 20. 기준)으로, 이중 ‘자기’ 관련 글

4) 연구논문 편수의 도출은 ①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이하 KCI)에 등록된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주제어 ‘글쓰기교육’과 ‘작문교육’에 ‘대학’을 재검색하여 선정한다. ③ 한국어교육 및 외국어교육 관련 논문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였음을 밝힌다. 김정숙·백윤경, 「대학 글쓰기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의 분석과 시사점 -2005-2017년 대학 글쓰기교육관련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108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pp.362-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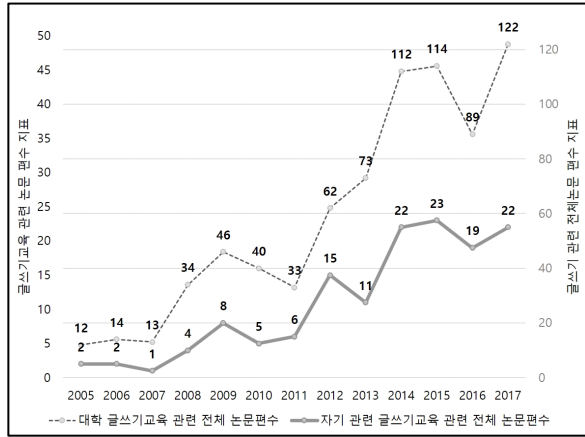
5) 위의 논문, pp.374-375.

6)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학 글쓰기교육 관련 전체 논문편수와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 관련 전체 논문편수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 관련 논문편수/비율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대학 글쓰기교육    | 12      | 14      | 13     | 34      | 46      | 40      | 33      | 62       | 73       | 112      | 114      | 89       | 122      |
|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 | 2(16.7) | 2(14.3) | 1(7.7) | 4(11.8) | 8(17.4) | 5(12.5) | 6(18.2) | 15(24.2) | 11(15.1) | 22(19.6) | 23(20.2) | 19(21.3) | 22(18.0) |

위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2년 62편, 2013년 73편, 2014년 112편, 2015년이 114편으로 점차 증가하다 2016년 89편으로 주춤했던 상황에서, 2017년에 122편이 발표되었다는 것은 최근 글쓰기교육에 대한 관심의 척도와 글쓰기교육 관련 토론이나 논의, 심포지엄, 학회 등의 증가와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쓰기에 관한 논문은 22편(18%)에 해당한다. 대학 글쓰기교육에서 활용되는 글쓰기 유형의 다양성을 상기할 때, 직·간접적으로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논문이 약 7편 중 1편 꼴이라는 것은, ‘자기’



(그림 1)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 게재논문 편수 추이

관련 글쓰기교육이 대학 글쓰기교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과 관련하여 2017년도에 발표된 학술논문(7)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습방법(모형), 매체 활용, 글쓰기의 유형을 정리하고 그 특징을 살펴 각 기준별 개념과 특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목표: 주제어 중 자기성찰, 탐색, 표현, 정체성은 글쓰기의 목표인 동시에 ‘자기’ 관련 글쓰기의 핵심으로도 활용됨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두 지점을 동일한 차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변별을 요하는 차원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2) 연구방법: 이론 검토와 실습(응용)의 결합이 다수를 이루고, 수업 모형의 도출을 위해 현상학적 해석학(벤 매넨)이나 폴 리피르의 ‘자기’ 개념, 페렐만의 신수사학 이론 등 주제와 관련한 담론 및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7) 대상 논문은 앞서 밝힌 3가지 기준에 준하여 도출된 논문 122편 중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을 다룬 논문은 22편으로, 그 목록은 참고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3) 교수법과 글의 유형: ‘자기’ 관련 글쓰기에 활용되는 교수 방법은 패러디와 다시 쓰기, 성찰 일지, 저널 쓰기 등이 있으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교수법도 제시된다. 그것의 결과물로 패러디 시, 성찰 일지, 자기소개서, 유서, UCC 등이 있다.

(4) 매체 활용: ‘자기’ 관련 글쓰기는 텍스트를 경유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고전문학작품부터 동서양 고전, 영화, 애니메이션, 미술작품 등 주로 인문학과 예술 분야와 관련된 텍스트로, 이는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와 이해를 담은 텍스트를 통해 자신을 비추보고 의미를 얻고자 하는 교수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에 발표된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은 대학에서의 대학 글쓰기교육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현대사회에서의 인간 본연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 인문학, 인성교육의 차원에서의 글쓰기교육의 역할에 대하여 강조한다. 아울러 어문규정, 문장쓰기 등 대학생의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도구적 성격으로의 접근을 시도하기도 한다. 인문학·예술 분야의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하거나 패러디 시 쓰기, 유서쓰기, 성찰일지 쓰기, UCC 제작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제시하며, 소통, 치유, 인성함양, 정체성 확립, 글쓰기 능력의 향상, 취업 등 다양한 차원으로서의 접근을 시도하는 등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을 다룬 논문들의 연구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을 다룬 논문은 앞으로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에 대한 연구는 ‘자기’ 관련 글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법 제안과 이에 대한 운영 사례와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이 가진 가치와 가능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이 가진 모호성과 한계 또한 보여준다.

기존 논의들에는 자기의 경험을이나 생각을 기술하는 과정은 대학 글쓰기교육에서 필요한 주제이며 과정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듯하다. 또한 먼저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친 후, 독자를 고려한 자기소개서 작성 및 취업을 위한 ‘실용적 글쓰기’로 나아가는 것이 유효하다는 관점이 우세해 보인다. 그

리고 이러한 방향성에서 두 특성을 이분법적으로 간주하거나, 취업을 목적으로 한 실용적 차원을 수단으로 여기며 거부감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다수의 논문이 인지하고 있듯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은 “다른 유형의 글쓰기에 비하여 논리적 비판적 글쓰기의 기능이나 개인의 경험에 대한 자기 표현 글쓰기로 한정되면서 인문학적 사유에 깊이 도달하기 어렵다.”<sup>8)</sup>는 우려를 담고 있다. 이는 2017년도에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한계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자기’ 내면의 탐색과 발견에 따른 인문학적 사유와 접근에 초점을 두고 제시한 교수법과 자기표현의 방법을 제시하고 글쓰기능력 신장에 초점을 둔 교수법 양측 모두 그 성과를 가시화할 객관적 평가 및 성과지표가 부재한다. 대학교육에 있어 대학생 학습자의 능력 신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안의 부재는 결국 목표 설정과 도달에 대한 가시적 효과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 다수의 연구결과가 대학 글쓰기교육에서의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제시라는 거시적 차원의 접근과 달리, 수업설계방안 및 교수학습법의 설계 제안과 사례분석에서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무엇보다도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에 있어 ‘피드백’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 연구방향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글쓰기 지도에 있어 피드백은 교수자의 강의 내 역할과도 직결된다.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은 ‘자기’를 탐색하고 성찰하는 등의 과정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평가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는 비단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 뿐만이 아니라 대학에서의 글쓰기교육이 지닌 과제이기도 하다. 대다수의 논문이 평가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거나 피드백에 대한 간략한 언급만으로 그치고 있다는 것은 이를 보여준다. 또한 다수의 글쓰기 사례에서 활용하고 있는 매체에 대한 선정 요건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에 앞서 제시되는 매체는 학습자에게 있어 표현방식과 내용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탐색할

---

8) 권채린, 『자기성찰적 글쓰기의 논증적 가능성 탐색을 위한 시론(試論)』, 『우리어문 연구』 57집, 우리어문학회, 2017, p.433.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김증을 거쳐야 역할 수행이 극대화될 것이다.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을 다룬 연구결과들이 드러내는 이러한 과제들은 글쓰기교육의 한 유형으로 포괄적으로 다루어지면서 그 목표 정립과 방향성이 명확해질 경우, 구체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 방향의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수의 글쓰기교육에 대한 상위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이를 드러낼 수 있는 용어의 선정 요건을 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2.2. 주제어로 본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의 현황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자기’ 관련 글쓰기가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자기’와 관련한 다양한 글쓰기를 하나의 유형으로 수렴할 수 있는 고유한 목표와 역할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에 활용하는 용어는 각 연구자별 세부목표설정이나 초점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각 연구자의 개성적 교수법을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임과 동시에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의 체계적 이론과 방법론을 대표하는 개념의 확립이 부재하다는 부정적 요인을 내포한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에서의 ‘자기’ 관련 글쓰기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 및 교수법 등 연구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들 ‘자기’와 관련한 글쓰기를 하나로 수렴할 수 있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앞으로 대학에서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이 나아갈 구체적 목표와 전망을 제시하는데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자기’와 관련 글쓰기를 다룬 논문에서의 용어 통일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2005년에서부터 2017년도에 이르기까지 현재 글쓰기교육에서의 ‘자기’ 관련 글쓰기를 지칭하는 글쓰기 용어는 아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무려 32개(76회)에 달한다.

2017년도 발표논문에만 한정한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 성찰적 글쓰기,

[표 1] 2005-2017년도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 관련 논문에서 사용된 글 쓰기 지칭어

| 구분                | 키워드명       | 개수        | 구분           | 키워드명         | 개수 |
|-------------------|------------|-----------|--------------|--------------|----|
| 자아<br>성찰<br>(3)   | 자아 성찰적 글쓰기 | 1         | 자기 탐색<br>(4) | 자기 탐색의 서사    | 1  |
|                   | 자아성찰 글쓰기   | 1         |              | 자기 탐색적 글쓰기   | 2  |
|                   | 자아성찰에세이    | 1         |              | 자기탐색 글쓰기     | 1  |
| 성찰<br>(10)        | (성찰적) 글쓰기  | 1         | 자전<br>(4)    | 자전적 글쓰기      | 3  |
|                   | 성찰적 글쓰기    | 9         |              | 자전적 쓰기       | 1  |
| 자기소<br>개서<br>(30) | 자기소개서      | 25        | 자기반영(1)      | 자기반영적 글쓰기    | 1  |
|                   | 자기 소개서     | 1         | 자기실현(1)      | 자기실현을 위한 글쓰기 | 1  |
|                   | 자기소개서 쓰기   | 3         | 자성(1)        | 자성적 에세이      | 1  |
| 자기<br>성찰<br>(12)  | 자기 성찰 글쓰기  | 1         | 자기서사<br>(3)  | 자기 서사 글쓰기    | 1  |
|                   | 자기 성찰글쓰기   | 1         |              | 자기서사 글쓰기     | 1  |
|                   | 자기 성찰의 글쓰기 | 1         |              | 자기서사 쓰기      | 1  |
|                   | 자기 성찰적 글쓰기 | 5         | 자서전(1)       | 자서전적 글쓰기     | 1  |
|                   | 자기 성찰적 서사  | 1         | 자기 표현<br>(7) | 자기표현 글쓰기     | 3  |
|                   | 자기성찰 글쓰기   | 1         |              | 자기표현의 글쓰기    | 1  |
|                   | 자기성찰적 글쓰기  | 1         |              | 자기표현적 글쓰기    | 2  |
| 자기성찰적 에세이         | 1          | 자기 표현 글쓰기 |              | 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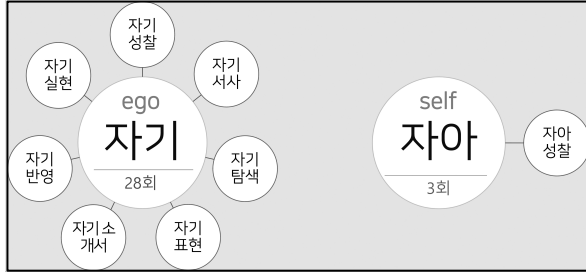
자기 서사 쓰기, 자기 서사 글쓰기, 자아성찰 글쓰기, 자기 성찰 글쓰기, 자기 성찰적 글쓰기, 자기탐색 글쓰기, 자기 탐색적 글쓰기, 자기 표현 글쓰기, 자전적 글쓰기까지 11개에 이른다. 물론 이들 용어가 다 동일한 글쓰기 유형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일범주로 보이는 개념 간의 통일성 및 이들 유사 범주에 속하는 글쓰기를 통합하는 개념의 필요성은 줄곧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이를 반영하듯 상위 개념의 설정과 정립에 대한 논의는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에 대한 다수 논문에서 제기된다. 특히 ‘자기’ 관련 글쓰기 용어에 대한 상위범주로 ‘자기 서사 쓰기’<sup>9)</sup>나 ‘자기 탐색적 글쓰기’<sup>10)</sup>, ‘자기소

9) 손혜숙은 “각 대학과 교수자들마다 글쓰기 교육 현장에서 ‘자기소개서’, ‘자서전’, ‘자기 서사’ 등의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게 사실이나, 각각의 용어가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수업 목표 및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보며, 이를

개서<sup>11)</sup>와 같은 용어가 거론된 적이 있으나, 이후 해당 용어가 상위 범주로 확정되어 쓰이기보다는 다시 하위 범주로 다루어지거나 다시 새로운 용어를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이 ‘자기’에 관련된 다양한 글쓰기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 정립의 어려움을 내포함과 동시에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이 대학에서 하나의 독립적 영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유사한 목표와 방식을 지칭하는 개념을 통일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sup>12)</sup>

[표 1]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 관련 논문에서 사용된 용어들이 자주 사용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특히 이들 용어는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에서 의도하는 ‘대상’과 ‘유형’의 범주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 
- 아우를 수 있는 용어를 “자기 서사 쓰기”로 보고 있다.(손혜숙, 「대학 글쓰기에서 ‘자기 서사 쓰기’의 교육방법 연구」, 『어문론집』 50호, 중앙어문학회, 2012, pp.420-422.)
- 10) 손혜숙은 “다양한 글쓰기 장르 중 기존의 ‘자아’와 관련된 글쓰기 연구를 글쓰기 연구들을 정리하고, 각 연구들의 의미를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용어 정립을 생략하고 거시적으로 ‘자아’와 관련된 모든 글쓰기연구들을 아우르는 의미에서 자기 탐색적 글쓰기로 통칭”하고 있다.(손혜숙, 「자기 탐색적 글쓰기에 관한 연구 동향」, 『교양학연구』 1권,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15, p.186.)
  - 11) 신호철·임옥규(「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자기소개서’의 재구성 연구」, 『어문론집』 71권, 중앙어문학회, 2017.)는 이 4가지 글쓰기를 자기소개서의 하위 항목으로 두고 각각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소개서가 이 4가지 글쓰기의 성격을 담는다 하여 이들 글쓰기의 목적과 방법, 관점, 특성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상위 범주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 12) [표 1]은 이 외에도 동일범주로 보이는 용어 간에도 띄어쓰기나 조사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용어로 지칭됨을 보여준다. 연구자의 의도에 의하여 지정된 용어일지라도 동일 범주의 글쓰기를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통일성이 없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동일·유사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 간의 연구 성과 공유 및 글쓰기 유형의 정립을 위해서는 학계 내에서 이들 용어를 통일하여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자기서사적 글쓰기 관련 핵심주제어 범주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만을 살펴보면 ‘자아’류와 ‘자기’류로 분류되는데, ‘자아’(3회)보다는 ‘자기’(28회)가 더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자아(ego)가 경험적 나이자 객체성, 평상시 모습을 의미한다면, 자기(self)는 선험적 나, 주체성, 본모습을 의미한다. 성찰하는 주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자아’가 ‘자기’의 구성 요소<sup>13)</sup>라는 점에서, 이들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활용될 경우 ‘자기’가 적절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상’을 포괄하는 개념의 규정은 쓰기 주체를 강조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대상을 규정하고 유사목표와 방식을 담은 다양한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는 ‘자기’가 적합해 보인다.

‘대상’과 결합된 ‘실천(표현방법/도구)’은 보다 다양화되어 있는데, ‘소개’(30회)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성찰(25회), 표현(7회), 탐색(4회), 서사(3회), 반영(1회), 실현(1회) 순이다. 신호철·임옥규는 용어 정립 과정에서 이들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서사(敍事)’는 일반적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 의미를 가지지만 서사의 기법에는 내적 인과 관계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내적 인과 관계를 요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 속에 나타나는 변화 등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용이므로, ‘서사’를 통해 내면적인 자신의 모습을 기술할 수 있을

13) 한래희, 「자아 이미지와 서사적 정체성 개념을 활용한 자기 성찰적 글쓰기 교육 연구」, 『작문연구』 20호, 한국작문학회, pp.342-343.

것이다. ‘성찰(省察)’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의미로, 이는 이전의 자신이 가졌던 심리적 내면 세계에 대한 반성을 행하는 것으로 ‘자기소개서’에서는 당연히 내면적인 자신의 모습을 내용으로 기술할 수 있다. ‘탐색(探索)’은 ‘드러나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 따위를 찾아내거나 밝히기 위하여 살피어 찾는’ 의미로, 이 역시 겉으로 나타날 수 없는 인간의 내면을 고찰하여 찾는 작업이다. 따라서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자기소개서’에 내면적인 자신의 모습을 내용으로 기술할 수 있다. ‘소개(紹介)’는 ‘잘 알려지지 아니하였거나, 모르는 사실이나 내용을 잘 알도록 하여 주는 설명’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가 가지는 기능을 담고 있어 자신의 외면을 알리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sup>14)</sup>

‘소개’의 개념과, ‘성찰’, ‘표현’, ‘탐색’, ‘반영’ 등의 개념은 결국 ‘자기’의 내면에 주목하고 이를 바라보고 살피는 과정을 통하여 나를 알리기 위한 실천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과정은 결국 ‘자기’의 ‘서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서사’는 ‘자기’ 내면에서 무엇에 초점화하여 이를 어떻게 구체적인 ‘이야기’로 끌어낼 것인가라는 글쓰기 방식을 포괄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을 다룬 다수 논문에서 글쓰기의 방법을 제시함에 있어 ‘서사’라는 개념을 끌어오는 지점과도 맞닿아 있다.

‘자기’ 관련 글쓰기 방식과 관련된 주제어가 감각적 글쓰기, 감성적 글쓰기, 감정표현 글쓰기, 내러티브글쓰기, 삶을 가꾸는 글쓰기, 에세이적 글쓰기, 즐거운 글쓰기, 체험적(정서적) 글쓰기, 표현적 글쓰기 등이며 이와 같은 글쓰기 교수법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연구 성과가 도출되는 배경에는 기억과 체험의 글쓰기를 통한 자기정체성 탐색과 자아 존중감, 치료 혹은 치유적 효과에 대한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이 대학 글쓰기교육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과 관련된 다수의 유의미한

14) 신호철 · 임옥규, 앞의 논문, pp.307-308.

교수법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유형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개념의 정립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다수의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을 통합할 수 있는 개념을 정립한 이후, 이 유형에 맞는 구체적 교육목표의 제시와 평가방안의 구축, 그리고 활용자료 등의 선정요건 등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 3. 자기서사적 글쓰기의 필요성과 방향성

#### 3.1. 자기서사적 글쓰기로의 용어 수렴의 필요성

앞서 보았듯이 글쓰기를 주제로 하는 ‘자기’ 관련 글쓰기를 가리키는 용어는 학술적 글쓰기, 논리적 글쓰기 등의 용어 및 개념에 비해 다양하다. 각각의 용어는 나름의 의미와 용법을 지니고 있지만, 또한 용어들 사이의 차이 및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 자신을 표현하는 글쓰기교육을 ‘자기서사적 글쓰기’로 수렴하여 사용할 것이다.<sup>15)</sup> 이를 위하여 먼저 ‘자기’ 관련 연구물을 살펴보고 각 연구들이 지닌 공통점에서 ‘서사’가 중요하게 직간접적으로 전제되어 있음을 밝힐 것이다.

실천과 점검이 병행될 때에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최근 ‘자기표현적’ 글쓰기교육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대안을 제시하는 아래의 연구들은 주목할 만하다. 김영진·현남숙은 자전적 글쓰기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체험에 관한 자기성찰과 현상학적-해석학을 바탕으로 대학 수준의 자전적 글쓰기에 필요한 원리와 특징을 제안한다.<sup>16)</sup> 박완서의 단편소설 「한 말씀만 하소서」와 히로나카 헤이스케의

---

15) 또한 다른 논문에서 인용할 경우, 논문에 쓰인 용어를 그대로 쓸 것이다. 이는 논문에서 쓰인 개념은 연구자의 주제의식을 압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자기’ 관련 글쓰기 용어가 다른 글쓰기 관련 용어에 비해 다양하고 중첩되어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학문의 즐거움』의 일부를 정독하고 분석하면서 학습자의 체험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의미를 담은 글쓰기사례를 의미 있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논문의 목적인 ‘대학 수준의 자전적 글쓰기’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것은 체험 혹은 경험의 수준을 어떻게 가치화하고 평가할 수 있는가의 질문과 결합되면 더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온다.

심선옥은 성찰적 글쓰기, 치유적 글쓰기, 자기표현 글쓰기와 같은 세 가지 범주를 두고 각각의 글쓰기가 목적과 방법,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17)</sup> ‘자기 자신’에 대한 글쓰기를 지칭하는 다양한 개념들이 혼용되는 중에서 대표적으로 성찰적 글쓰기, 치유적 글쓰기, 자기표현 글쓰기를 꼽을 수 있다. 세 유형의 글쓰기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글쓰기를 통합하는 상위 개념으로 자기표현 글쓰기(self-expressive-writing)를 설정하였다.<sup>18)</sup>

김미란은 “자기표현적 글쓰기가 대학의 글쓰기 수업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가” 질문하며, 앞으로 작문 이론이 보강해야 할 점은 담론 공동체를 중심

16) 김영진·현남숙, 「자기성찰에 기반한 자전적 글쓰기 교육-체험 서술과 그 의미 해석에 대한 벤 매년의 이론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 교양교육학회, 2017.

17) 심선옥이 밝힌 각각의 글쓰기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성찰적 글쓰기, 치유적 글쓰기, 자기표현 글쓰기의 특성

| 개념       | 글쓰기의 목적               | 글쓰기 방법                               | 이론적 관점   |
|----------|-----------------------|--------------------------------------|----------|
| 성찰적 글쓰기  |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      | ‘성찰의 매개체에 대한 사유’와 ‘자기 자신에 대한 사유’의 결합 | 인문학적 관점  |
| 치유적 글쓰기  | 심리적 안정감, 심리적 치유       | 외상 경험과 심리적 상처의 표현                    | 심리학적 관점  |
| 자기표현 글쓰기 | 자기 탐색과 표현, 전인적인 내적 성장 | 자신의 경험, 생각, 느낌을 자유롭게 서술              | 표현주의적 관점 |

심선옥, 「대학 교양교육에서 자기표현 글쓰기의 위상과 교육방법 연구」, 『반교어문연구』 43권, 반교어문학회, 2006, p.368.

18) 위의 논문, p.376.

으로 글쓰기의 사회적 성격을 더 깊이 사유하는 것이고, 장르의 측면에서는 자기표현적 글쓰기가 아닌 자기 성찰적 글쓰기를 선택해야 담론 공동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가능하다고<sup>19)</sup> 기술하였다. 한편, 권채린은 자기성찰적 글쓰기가 ‘내면-기억-치유’의 담론에 편향되지 않고 심화된 인문교양으로서 정립되기 위해서는, 담화 공동체의 논의를 기반으로 개인의 주관적 기술을 넘어서는 상호주관적인 의사소통을 지향해야 한다<sup>20)</sup>고 강조한다. 그리고 존재가 놓인 사회적 맥락과 배치를 사유하는 공시적 탐색이 동반되어야 하며, 페렐만의 ‘논증행위(argumentation)’를 적용한 자기성찰의 과정을 학술적·사회적 담론과 연동시키는 학습 프로그램의 운용을 제안한다. 이 논의에서 문제의식은 선명한 데 반해 시론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적(私的) 기술의 논적(論的) 접근을 통한 ‘자기 논증’의 탐색은 모호하며 기존 글쓰기교육과 크게 변별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신철호·임옥규는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기존 논의에 대한 용어 및 개념적 접근 그리고 재구성을 통해, “대학 글쓰기 수업의 ‘자기소개서’ 교육은 신입생 대상의 ‘소통 지향 유형’의 자기소개서와 2·3학년 대상의 자기 성찰과 발견 목적의 ‘내면 지향 유형’의 자기소개서와 4학년 대상의 자기 홍보와 취업 목적의 ‘외면 지향 유형’의 자기소개서로 재편”<sup>21)</sup>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기존 논의들에 대한 경향 및 특징을 자세히 분석하고 대학생의 생활주기를 고려해 재편한 점은 공감하지만, ‘소통 지향’ ‘내면 지향’ ‘외면 지향’의 범주 설정의 타당성 및 세 특성의 겹침 현상에 대한 의문이 든다. 또한 구체적인 교수법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대학 글쓰기교육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과목의 경우 학년과 계열 구분이 없는 경우 이 제안은 현실성이 덜해질 수밖에 없다.

임지연은 서사적 정체성과 타자성을 경유하는 자기성의 개념을 리코르의

19) 김미란, 「대학의 글쓰기 교육과 장르 선정의 문제 -자기표현적 글쓰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제9집, 대학작문학회, 2009, p.93.

20) 권채린, 앞의 논문, p.409.

21) 신호철·임옥규, 앞의 논문, p.316.

서사이론을 통해 검토한 후, 학생들이 쓴 텍스트에서 타자성의 개입과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을 재검토하면서 글쓰기의 윤리성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sup>22)</sup> 자기서사의 관점이 본 논문의 논지에 부합한 점에서 주목하였는데, 성장서사, 성찰서사, 관계서사 등의 구별점과 그에 대한 교수자의 피드백과 평가에 대한 부분에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참고하여 200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자기서사적 글쓰기’ 관련 글쓰기교육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에서 활용된 여러 요소 중 자기서사적 글쓰기 목표를 중심으로 관련된 핵심주제어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3]과 같이 4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그림 3] 자기서사적 글쓰기 관련 핵심주제어 범주

자기서사적 글쓰기는 자기화, 자기 동기화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글쓰기효능이 다른 활동에 비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기서사적 글쓰기와 관련하여 1범주 “성찰·탐색”과 3범주 “치유”와 관련된 주제어가 다양하고, 2범주 “표현·반영”과 4범주 “실용”과 관련된 주제어는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대학의 자기서사 글쓰기교육은 교수법의 다양화, 전문화, 매체를 활용한 적용 및 변

22) 임지연, 「자기 서사 글쓰기에서 타자적 윤리성의 문제」, 『작문연구』 제18집, 한국작문학회, 2013.

환의 양상을 띠며, ‘인성교육’ ‘전인교육’ ‘교양교육’을 강조하는 시대적 요구와 관련시키고 있다.

성찰과 탐색, 표현과 반영, 그리고 치유와 실용의 가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효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가치들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야기,’ 즉 유의미한 ‘사건’에 대한 서사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자기서사’는 네 범주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밑바탕 혹은 기본 자료로서 이야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초점화하느냐에 따라 범주의 성격이 다르게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자기’와 관련된 글쓰기의 용어가 다양한 것은 교수자의 수업방향에 따라 서사의 수렴과 확산이 활성화되기 때문일 것이다.

“문학은 내면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여야 한다.”는 카프카의 말을 변용하면, 글쓰기는 내면의 결과 파동을 흔들어 깨우는 풍경과도 같다. “글이란 자기가 몸소 겪거나 각별히 애정을 갖는 대상에 관하여 얘기할 때라야 비로소 질실한 감동을 얻어내는 법”<sup>23)</sup>이다. 인간의 인지능력은 거친 대자연에서 살아남게 한 원동력이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그것을 영속하기 위해 언어를 고안하게 했으며, 공동체에 필요한 소망, 기대, 금기 등을 신화나 전설로 이어왔기 때문에 인류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허구적 이야기와 언어능력은 인간 존재에 가장 긴요한 생존 수단이 된 것이다. 마이클 셸렐 교수도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이야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과 공동체에 서사적 가치를 주목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자신에 대해 그리고 그가 속한 사회 및 자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세헤라자드의 이야기 욕망은 은유인 동시에 실체인 셈이다. 대학생들 역시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표현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야기’는 중요하며, ‘이야기능력’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살아내는 힘을 지니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제 대학의 글쓰기 수업현장에서는 서사적 글쓰기가 자기 성찰 및 정체성 수행의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으며 동시에 타자성에

23) 현기영, 「겨우살이」, 『아스팔트』, 창비, 2015, p.164.

의해 자기성찰이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sup>24)</sup> 또한 자기서사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은 자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 이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구체적인 세계 이해, 자아와 타자의 관계 맺음 등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사유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sup>25)</sup> 대학생 학습자에게 필요하다.

요컨대 자기정체성과 자기탐색은 부단히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서사’는 그것을 실현하는 기술양식이다. 즉 파편화되고 고립된 삶에 준안정적(metastable) 통일성을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자기를 배려하고 동시에 타자성과 공유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사회적 관계성을 구축해 나가는 삶의 기예<sup>26)</sup>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글쓰기를 수행하면서 경험(사건)을 선택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글쓰기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활동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전적 글쓰기는 삶의 구체적 맥락에서 글쓴이의 직접적 체험을 기술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기술하는(혹은 ‘해석하는’) 것이다.<sup>27)</sup> 그런데 학술논문에서 주제어 빈도수가 높은 ‘자전적’이라는 용어는 대학생들에게 과거를 회상하고 반추하게 하는 과정에서 글쓰기의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자기서사적 글쓰기’로 대체해도 좋을 듯하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학생을 포함해 인간은 구성하는 존재로서 현재진행 중이며, 이야기를 통해 발화되는 ‘나’는 가변적이고 불연속적이며 불안정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동시에 구성되고 형성되는 과정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자기서사적 글쓰기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확대할 수 있다.

글쓰기 사례를 통해 살펴본 글에서 학생들은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를 글로서 표현하고 있다. 글을 쓰면서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

24) 임지연, 앞의 논문, p.143.

25) 이양숙, 「자기서사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50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1, p.177.

26) 정명중, 「신자유주의와 자기서사」, 『인간·환경·미래』 제19집,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7, pp.7-8.

27) 김영진·현남숙, 앞의 논문, p.158.

하며 자기이해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성교육의 시작은 자기이해에서 출발한다. 자기이해를 통해 글쓰기로 자기를 표현하고, 타인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에 기여하는 실천인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sup>28)</sup>

쓰기 기술 양식을 활용하면서 구성하는 존재로서의 ‘자기’를 형성해가는 점에서 ‘자기서사’의 개념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는 ‘인성·전인·교양인’의 교육목표에 정향될 수 있는 점에서도 현 시대에 필요하다. 대학의 교양교육이 계층재생산과 같은 지배이데올로기에 포획된 교양주의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자기내부의 회로에 갇힌 정체성에서 타자어로 열린 윤리적 정체성을 지향하는 자기서사 글쓰기의 의미에 대해 실천적으로 사유해야<sup>29)</sup> 한다는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시대를 대비하는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인간 고유의 가치, 즉 인간의 감성과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 능력과 같이 인간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대학 교양교육에서 자기서사적 글쓰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할 수 있다.

### 3.2. 자기서사적 글쓰기교육을 위한 ‘평가방법’의 제안

본 연구 대상인 자기서사적 글쓰기는 발신자의 체험(경험)과 생각 등을 발화함으로써 소통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신자와의 일화(에피소드)를 공유함으로써 감정이입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반응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긴요한 일이다. 한편으로는 평생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대학 글쓰기교육에서의 ‘자기서사적’ 글쓰기교육의 변별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

28) 박해량, 「글쓰기 사례를 통해 본 인성교육 방안」, 『교양교육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p.640.

29) 임지연, 앞의 논문, p.150.

그런데 이러한 글쓰기교육은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발신자와의 관계성에서 폐쇄적이고 자기반영성에 그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과정은 대학이 아닌 곳에서도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인문학의 활기에 힘입어 평생교육원이나 신문사 등의 아카데미에서 전문 강사나 작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글쓰기교육의 좌표<sup>30)</sup>를 점검해봐야 한다. 이러한 개인적 체험이 어떻게 학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학술적인 태도로 접근했을 때 논리화되는 지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 이는 “자기 성찰적 글쓰기가 지닌 개별적·경험적·기술(記述) 양식의 편향과 그에 기반한 교육 방법이 대학의 (학술적) 아카데미즘과 맞는 불협화<sup>31)</sup>”라는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한다. 곧 대학생의 정체성<sup>32)</sup>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를 설정할 때 대학 글쓰기교육의 가치와 연동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서사적 글쓰기에 대한 평가 기준일 것이다. 교육을 이루는 행위 중 주요한 요소는 ‘평가’이다. 교육이 입력(input)과 성취(out-put)의 과정임을 고려하면, 평가는 교육의 목표 및 교수법과 교육내용 등이 잘 적용되었는가를 판단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에서 평가는 학습자의 변화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성장과 성숙을 도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점에서 그 가치와 필요성을 지닌다.

30) 김미란은 “성숙된 사유를 할 수 있는 지식인의 양성이라는 교양적 성격과 전문적 지식 습득의 토대를 제공하는 도구적 성격 둘 다를 만족시키는 데서 대학 글쓰기 과목의 정체성”을 찾고 있다. 김미란, 앞의 논문, p.70 참조.

31) 권채린, 앞의 논문, p.410.

32) 에릭슨의 인간발달과정을 참조할 때, 대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적 삶에서 무엇을 고민하는지 가능할 수 있다. 박해랑의 정리에 따르면, “제5단계(12-20세)는 자아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정체성은 평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 시기에 어느 정도 형성되는 시기를 갖지 못하면 정체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제6단계(20-40세)는 친밀감 대 고립감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5단계에 형성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친밀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친밀감의 형성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고, 이 시기에 인생을 함께 할 동반자를 찾고, 사랑하고, 결혼하는 시기이다.” 박해랑, 앞의 논문, p.632.

‘자기 자신’에 대한 글쓰기의 개념과 용어들이 연구자와 교수자에 따라 정리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으며,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방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글쓰기와 연구를 경험주의적 한계에 머무르게 하고,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글쓰기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글쓰기 교육과정의 초반에, 학생들이 가장 잘 아는 제재인 ‘나’에 대해 글을 쓰면서 글쓰기의 부담감을 덜고, 글쓰기의 일반 원칙을 연습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글쓰기를 하나의 독립된 글쓰기 영역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글쓰기의 개념과 용어를 그 목적과 이론적 근거에 따라 정리하고 통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글쓰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수자의 역할 및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지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sup>33)</sup>

대학 글쓰기교육의 평가와 관련된 논의는 다른 영역에 비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수자마다 평가에 대한 의견도 다를 것인데, 성취 수준에 따라 통과/비통과(pass/ nonpass), 절대평가, 상대평가 등으로 분화된다. 또한 글쓰기교육에서 글 자체를 평가하는 항목도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보고서, 서평, 에세이, 논문 등에 대한 점수 배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자기서사적 글쓰기의 경우 평가의 적용은 더 어려울 수 있다. 자기 체험과 성찰 등의 내용은 그 나름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준거가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글쓰기교육은 평가가 가능하며 필요한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환기한다. 만약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글 자체의 평가여야 하는가, 아니면 대학 제도(성적평가)를 위한 평가여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적절한가라는 연속되는 물음들로 이어진다. 체험(경험)과 트라우마, 기억, 관계 등이 투입되고, 탐색, 성찰, 표현, 치유, 실용으로 산출되는 자기서사적 글쓰기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 평가인 동시에 대학 제도 안에서 신뢰

---

33) 심선옥, 앞의 논문, p.354.

할 만한 평가(필터링) 효과를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서사적 글쓰기의 경우 평가도구가 오히려 억압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미 대학 글쓰기 교과목이 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자기서사적 글쓰기의 경우 평가에서 자유로워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대학 글쓰기교육의 필요성 및 평가의 가치를 좀 더 숙고할 대목이다. 평가의 초점을 명료하고 다각화한다면 글 쓰는 두려움을 벗어나 길잡이 역할을 도모할 수 있으며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 만능주의와 우선주의에 갇히지만 않는다면, 대학의 기초교육 및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교육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능력과 학문성을 습득해 인성과 교양을 갖춘 성숙한 교양인 및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대학교육의 목표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글쓰기가 창의력을 요하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모범답안이 없다 하더라도, 대학에서의 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재 수업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자기서사적 글쓰기를 어떠한 평가도구와 방법, 기준을 통하여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 준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자기서사적 글쓰기뿐만 아니라 모든 글쓰기에 해당한다.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동시에 이뤄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 대학 글쓰기교육의 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논문의 분량 등을 고려해 후속 논문을 통하여 다룰 예정이다.

##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이후 대학 글쓰기교육의 현황을 살피고 이중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의 위상을 확인하였으며, 이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을 대학 글쓰기교육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서사적 글쓰기교육’ 용어를 정립하고, 구체적 실천 가능성을 위한 평가 준거를 제안하였다.

최근 논의들은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의 필요성과 적용, 한계점 등을 다양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2017년도에 발표된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에 관한 논문들을 통하여 현대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문학의 중요성과 연계하여 ‘자기’ 발견 및 탐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함으로써 긍정적 발전 가능성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수업실계방안이나 교수법을 제안하고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다는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2017년도에 이르기까지 ‘자기’ 관련 글쓰기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인 용어만 32개라는 점은 동일범주로 보이는 개념 간의 통일성 및 이들 유사 범주에 속하는 글쓰기를 통합해야 할 것이며, 이들 유형에 대한 상위범주로서의 용어 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상위 범주로서의 용어 설정은 ‘자기’ 관련 글쓰기교육을 하나의 글쓰기 유형으로 정립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첫째는 용어의 정립, 둘째는 평가 준거의 제안이 그것이다. 교수자의 글쓰기목표와 적용 과정에 따라 다양한 용어가 쓰이는 점은 공감한다. 그런데 기존 연구들의 내용을 수렴할 공통적인 요소가 ‘서사’라는 점이 공유된다면 ‘자기서사적 글쓰기’로 범용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표현과 이해, 탐색과 성찰, 치유와 실용성의 성취나 효과도 자기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학에서의 자기서사적 글쓰기의 변별성과 심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가의 준거가 필요하다. 자기는 고립되거나 독립된 존재에 고정되지 않고 자기 이외의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자기서사적 글쓰기를 진행하는 동안 학습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되, 평가준거를 제시해 줌으로써 성취목표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자기서사적 글쓰기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글쓰기를 수행하는 기술적인(technical) 능력과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교차, 그리고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과 관련된 사회적 협업(collaboration) 능력을 가르치고, 학습자들은 그것을 습득함

으로써 주체로서 성장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 자기 내면의 이해와 자기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자 나아가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자기서사적 글쓰기교육은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인간 본연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점에서, 이를 대학 글쓰기교육의 한 유형으로 제안한다.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최종 교육기관인 대학에서의 글쓰기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큰 지금, 그에 걸맞은 대학 글쓰기교육 방안과 교육 목표의 설정은 앞으로 대학 글쓰기교육의 발전과 전망과도 직결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명신, 「문학을 활용한 자기 성찰적 글쓰기 수업 방안」, 『리터러시 연구』 21호,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17.
- 공주은·노상래, 「4차 산업혁명과 대학 글쓰기 교육」, 『교양교육연구』 11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 권채린, 「자기 성찰적 글쓰기」의 논증적 가능성 탐색을 위한 시론(試論), 『우리어문연구』 57집, 우리어문학회, 2017.
- 김미란, 「대학의 글쓰기 교육과 장르 선정의 문제」, 『작문연구』 제9집, 대학작문학회, 2009.
- 김영진·현남숙, 「자기성찰에 기반한 자전적 글쓰기 교육」, 『교양교육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 김정숙·백윤경, 「대학 글쓰기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의 분석과 시사점」, 『인문학연구』 108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 김현정, 「치유를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 운영의 방향성」, 『대학작문』 19집, 대학작문학회, 2017.
- 김화경, 「역량기반 교육과정 고찰 및 창의융합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적 글쓰기 운영방안 연구」, 『대학작문』 제19호, 대학작문학회, 2017.
- 박명숙, 「융합적 <사고와 표현>의 스토리텔링 교수학습」, 『교육문화연구』 23권 3호, 교육연구소, 2017.
- 박은하, 「글쓰기 텍스트에 나타난 대학생들의 구어적 표현 양상」, 『리터러시 연구』 19집, 한국리터러시학회, 2017.
- 박해랑, 「글쓰기 사례를 통해 본 인성교육 방안」, 『교양교육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 박해랑, 「성찰적 글쓰기를 통한 글쓰기 교육 효과 연구」, 『문화와 융합』 39권 5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
- 방설영·은영,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성찰질문과 글쓰기를 이용한 디브리핑의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3권 4호, 한국간호교육학회,

2017.

- 손대현, 「입사지원서 쓰기 교육의 방안과 그 실제」, 『동남어문논집』 44권 1호, 동남어문학회, 2017.
- 손혜숙, 「대학 글쓰기에서 ‘자기 서사 쓰기’의 교육방법 연구」, 『어문론집』 50호, 중앙어문학회, 2012.
- 손혜숙, 「자기 탐색적 글쓰기에 관한 연구 동향」, 『교양학연구』 1권,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15.
- 손혜숙, 「대학 글쓰기와 인성 교육의 연계 가능성」, 『문화와 융합』 39권 5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
- 신호철 · 임옥규,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자기소개서’의 재구성 연구」, 『어문론집』 71집, 중앙어문학회, 2017.
- 심선옥, 「대학 교양교육에서 자기표현 글쓰기의 위상과 교육방법 연구」, 『반교어문연구』 43권, 반교어문학회, 2006.
- 윤지관, 「현단계 한국 대학의 위기 양상과 대학 체제 개편 논의」, 『동향과 전망』 통권 99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7.
- 이소연, 「포스트휴먼 시대 인문학적 사고와 글쓰기 교육 방안」,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1권 2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7.
- 이승규, 「시작법(詩作法)을 활용한 자기성찰 글쓰기 교육」, 『사고와표현』 10권 2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7.
- 이양숙, 「자기서사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50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1.
- 이연승, 「영화를 활용한 자기 성찰적 글쓰기 교육 사례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7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 이효숙, 「장소성 기반 자기 성찰 글쓰기 수업 모형 개발」, 『문화와 융합』 39권 2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
- 이효숙 · 홍송이, 「대학 신입생의 글쓰기에 나타난 대학의 장소성과 대학 적응 과정 고찰」, 『어문론집』 71집, 중앙어문학회, 2017.
- 임지연, 「자기 서사 글쓰기에서 타자적 윤리성의 문제」, 『작문연구』 제18

- 집, 한국작문학회, 2013.
- 장민정, 「대학 글쓰기 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쓰기에 대한 쓰기 인식 변화: 서평 쓰기에 대한 성찰일지 분석」, 『텍스트언어학』 42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7.
- 정구철,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권 9호, 한국콘텐츠학회, 2017.
- 정덕현, 「사진과 내러티브를 활용한 성찰적 글쓰기 수업 연구」, 『문화와 융합』 39권 2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
- 정명중, 「신자유주의와 자기서사」, 『인간·환경·미래』 제19집,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7.
- 정희모,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방향」, 『작문연구』 1권, 한국작문학회, 2005.
- 한래희, 「자아 이미지와 서사적 정체성 개념을 활용한 자기 성찰적 글쓰기 교육 연구」, 『작문연구』 제20집, 2014.
- 현기영, 「겨우살이」, 『아스팔트』, 창비, 2015.
- 홍단비, 「2000년대 소설을 활용한 자기탐색 글쓰기 교육 방안」, 『우리문학 연구』 55집, 우리문학회, 2017.
- The Future of Jobs Report: Employments,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2016.01.18.

【Abstracts】

**The study on the Present Status and Direction of the Education of ‘self’ related writing in university writing education**

Kim, Jeong-sook · Baek, Yun-kyung

This study examined the present status and direction of the education of ‘self’ related writing. In order for the ‘self’ related writing to become a separate area in colleges, the specific goals and roles related to this should be clearly set.

The discussion focusing on two points was carried out. The first is the formulation of terms, and the second is the evaluation criteria. It is decided to be shared that the common elements to converge the contents of existing studies are ‘self’ and ‘narrative’, and that expression and understanding, exploration and reflection, achievement and effectiveness of healing and practicality also originate in the “story” of self. So, we proposed to use it as ‘self narrative writing’. In addition, evaluation criterion is needed to achieve differentiation and deepening of self narrative writing in colleges. Discussions on the evaluation of university writing education are not made in earnest compared to other areas. In the case of self narrative writing, as the application of the evaluation may be more difficult, and the contents of self experience and reflection have their own unique characteristics, evaluation criteria need to be prepared separately.

With a focus on oneself, based on understanding of the inner self and

understanding of the world around oneself, it is expected that self narrative writing education, which suggests ways of communicating with other worlds is will be able to play a role to confirm the value and identity of human nature along with the flow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ey words:** 'self' related writing, the formulation of terms, the evaluation criteria, 'self' and 'narrative', self narrative wri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이 논문은 2018년 2월 1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8년 3월 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8년 3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